구광국의
화엄으로 본 보로부두르대탑 ④ 대탑과 화엄경 입법계품



▶ 한줄 요약
보로부두루대탑에는 4개의 회랑이 있다. 이들 회랑에는 많은 부조상이 있는데 이와 〈화엄경〉의 관계를 조명해봤다. 실제 2회랑의 경우 십신부터 십지까지 계위를 〈화엄경〉 '입법계품'의 53선지식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

대탑 2회랑 부조, 화엄계위 훌륭히 재현

보로부두르대탑(Borobuduru Stupa)이 '화엄경탑' 임을 들어내는 방법 3가지 중, 지난 연재에서는 보로부두르대탑의 10층 구조와 〈화엄경〉 '십지품' 을 배대해 서로 상응함을 살펴봤다. 이번에는 대탑의 4개 회랑의 부조상 배치와 52수행계위(階位)를 담고 있는 〈화엄경〉 '입법계품' 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대탑이 '화엄경탑' 임을 밝히고자 한다.

'입법계품' 은 〈화엄경〉의 마지막 품으로서 39품 중 한 품이지만 그 분량은 권수(60~80)로 볼 때 총 〈화엄경〉 분량 중 약 1/4에 해당하는 방대한 양이다. 또한〈화엄경〉 앞의 1~38품의 화엄 사상과 수행 체계를 선재동자를 통해 드러내고 있어, 보로부두르 대탑의 4개의 회랑의 부조상이 입법계품의 내용일 경우 대탑이 '화엄경탑' 이란 주장은 아주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

'입법계품' 에서 수행자 선재동자는 남인도 복성(福城, Dhanyakatakam)에서 지혜제일 문수보살을 친견하고 법을 들은 후 발보리심하여 남방으로 유람하며 선지식(善知識, Kalyana Mitra)을 친견하고 보리도와 행을 구하라는 가르침을 받는다.

53선지식을 찾아가 보리도를 얻어 문수 · 보현보살의 경지에 이르러 부처와 대등한 법계에 마침내 들어간다. 선재동자가 체득한 단계별 수행계위는 첫 단계인 십신(十信)에서 십주(十住)-십행(十行)-십회향(十廻向)-십지(十地)-등각(等覺)-묘각(妙覺)에 이르러 그 후 부처의 법계에 이르는 단계로 52계위이다. 이 수행계위를 대탑의 4회랑 부조상과 배대하여 일치함을 보임으로써 대탑이 '화엄경대탑' 임을 밝힐 수 있을 것이다.

보로부두르대탑 3층 1회랑은 아래 부분에 위치하여 다른 회랑에 비교해 넓고 높으며 또한 길다. 주벽과 난순은 다른 회랑이 단층인데 반에 복층상하 구조로 부조상이 설치되어 있다. 주벽 상단은 부처님 이야기 120편이, 주벽 하단 석가모니 본생담 120편이, 그리고 난순 상단 본생담 372편, 난순 하단 본생담 128편이 부조상으로 조성돼 있다. 본생담은 석가모니 부처님 이야기로 집결됨으로 주요 내용은 주벽 상단 부처님 일대기라 할 수 있다. 주벽 상단의 내용은 석가세존이 탄생 전 주석하던 도솔천의 장면에서 시작하여 최초의 5비구를 제도하고 전법 선언까지의 이야기가 120장면의 부조상으로 조성돼 있다.

부조상의 특이한 점은 세존의 행적을 부조한 120장면의 끝이 붓다의 열반지 쿠시나가르가 아닌 최초 설법지 녹야원의 전법선언 장면이다. 이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부다가야 보리수 아래에서 성불 후 그곳에서 보내신 칠칠일 중 첫 삼칠일에 천신들에게 설법한 〈화엄경〉을 녹야원에서 교진녀 외 4비구에게 설한 법과 같이 초전법륜으로 보고 있음을 여겨진다. 〈화엄경〉 '약찬게' 의 "근본화엄전법륜(根本華嚴轉法輪)"과 상통한다. 따라서 대탑의 1회랑은 〈화엄경〉의 설법을 표현한 회랑으로 2 · 3 · 4회랑으로 전개되는 '입법계품' 의 전개 과정에서의 시작점으로 기 · 승 · 전 · 결의 '기' 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대탑 2회랑 91번째 부조상. 창녀인 바수밀다 여인과 선재동자와의 만남을 재현했다. 바수밀다 여인은 26번째 선지식이다.

대탑 4개 회랑 상존하는 부조상들
화엄경 '입법계품' 상관관계 많아
2회랑, 십신부터 십지까지의 계위
'입법계품' 53선지식을 통해 보여

대탑 4층 2회랑과 화엄경

2회랑은 보로부두르대탑이 발굴되고 부조상들이 해석되는 과정에서 대탑이 '화엄경탑' 임을 보이는 결정적 단서를 제공한 회랑이다. 이 회랑이 비정되지 않았다면 3회랑 4회랑은 해석이 불가능하였을 것이다. 지금도 특히 4회랑의 부조상에 관한 비정 결과에 여러 의견이 분분하니 이곳의 부조상 비정의 결과들은 단서와 패턴으로 제공되어 알기 어려운 부조상을 분석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

2회랑 부조상은 주벽 128면(Ⅱ.A.1-128)과 난순 100면(Ⅱ.B.1-100)으로 이뤄졌다. 2회랑 주벽이 주요 내용임으로 이 부분을 위주로 내용을 다룬다. 이곳의 주 내용은 선재동자가 53선지식을 찾아가며 보리도를 구하고 점점 성취해서 마침내 불지에 도달하는 수행 단계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52계위로 구성돼 있다.

2회랑 첫 장면이 동쪽에서 시작하여 시계방향으로 불보살과 선지식 이야기가 벽면에 도상돼 있다. 동쪽에서 남쪽으로 향하는 방향성은 남순동자 선재의 구법여행을 표현하기에 최적이다.

2회랑 주벽 부조상 1면에서(Ⅱ.A.1) 부조상 15면(Ⅱ.A.15)까지는 80〈화엄경〉 '입법계품' 의 근본 법회 장면에 해당한다. 세존께서 기원정사에서 보살마하살 오백 사람과 함께 계시는데 보현보살과 문수사리보살, 그 외 성문, 연각, 세간의 왕들이 운집하여 있는 장면이다. 이 범위의 내용은 4회랑 보현보살의 신통함을 묘사하는 부조상과 거의 똑같아 그 곳 비정에 활용된다.

Ⅱ.A.1(2회랑 주벽 첫 번째 부조상)에는 부처님이 처음 등장하는데, 거룩한 존재성을 드러내기 위하여 악사들이 상서로운 곡을 연주하고 보살들이 부처님을 참배하는 장면이다.

Ⅱ.A.2는 "그때 세존께서 코살라국 기원정사의 크게 장엄한 누각에서 보살마하살 오백 사람과 함께 계시는데 보현보살과 문수보살이 우두머리가 됐다"라는 '입법계품' 의 경구를 표현하고 있다. 보현보살이 부조상 위쪽에, 문수보살이 아래쪽에 위치하여 여러 대중을 거느리고 있는 모습이다. 문수보살은 아직 피기 전 연꽃 한 송이를 들고 있는데 부조상에서는 보살들의 구분을 위해 중요 보살은 각자 상징적인 꽃을 들고 있다.

Ⅱ.A.3은 오백 보살마하살, 오백의 성문, 오백의 임금으로 부처님께 법을 청하던 모습을 나타낸다.

Ⅱ.A.4에서 Ⅱ.A.13까지 10면 부조상은 시방세계인 동방, 남방, 서방, 북방, 동북방, 동남방, 서남방, 서북방, 하방, 상방에서 온 보살들을 차례로 표현하고 있음으로 여겨진다.

Ⅱ.A.14는 보현보살이 시방세계에서 찾아온 보살들에게 부처님이 놓은 사자빈신삼매로 이루어지는 세계를 설명하는 장면이다. 오른쪽 3층 구조는 많은 보살을 뜻하며, 왼쪽 보현보살이 들고 있는 꽃은 보현보살의 상징으로 모든 보현보살이 들고 있다. 이는 4회랑 보현보살 비정에 활용된다. 이렇듯이 이곳의 도상은 다른 회랑 비정에 결정적 단서가 된다.

Ⅱ.A.15는 시방세계에서 온 각각 세계의 대표 보살이 부처님 주변에서 보배 연화장을 변화시켜 앉아 있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Ⅱ.A.16은 첫번째 선지식 문수보살을 선재동자가 남인도 복성에서 친견하는 장면이다. Ⅱ.A.17은 두 번째 선지식 덕운비구, Ⅱ.A.18은 3번째 선지식 해운비구, Ⅱ.A.19는 4번째 선지식 선주비구, Ⅱ.A.20은 5번째 선지식 미가장자, Ⅱ.A.21은 6번째 선지식 해탈장자, Ⅱ.A.22는 7번째 선지식 해당비구, Ⅱ23은 8번째 선지식 휴사우바이, Ⅱ.A.24는 9번째 선지식 비목구사선인까지는 경전의 순서대로 선지식이 등장한다. 그 이후부터는 순서의 나열이 패턴이 없다.

부조상 주벽(Ⅱ.A.25)에 10번째 선지식 승열바라문이 나오지 않고, Ⅱ.A.70에 나오게 된다. Ⅱ.A.25에는 11번째 자행동녀 선지식이 등장하면서 부조상 순서와 선지식 배열이 연속성을 잃게 된다. Ⅱ.A.26은 12번째 선지식 선견비구, Ⅱ.A.27은 13번째 선지식 자재주보살, Ⅱ.A.28은 14번째 선지식 구족우바이, Ⅱ.A.29는 15번째 선지식 명지거사, Ⅱ.A.30은 16번째 선지식 법보장장자, Ⅱ31과 Ⅱ32는 다른 변상도가 조성돼 있고, Ⅱ33은 17번째 선지식 보안장자가 나온다. Ⅱ34도 보안장자(히카타 주장), Ⅱ35는 18번째 선지식 무염족왕, Ⅱ36은 19번째 선지식 대광왕(히카타 주장)이다. 계속해서, Ⅱ42 부조상에 24번째 선지식인 무상승 장자가 나와야 하는데 이 선지식은 Ⅱ89 부조상에 조상되었다. Ⅱ70 부조상 이후 앞에 나온 선지식이 다시 나오는데 불규칙적으로 나옴으로써 안내서 없이는 부조상에서 각각의 선지식 파악이 쉽지 않다.

부조상이 경전의 선지식 순으로 안 된 원인에 대해서는 선재동자가 53선지식보다 더 많은 선지식을 친견하였음을 의미하며, 또한 회랑벽에 부조상의 이차원적인 일렬 배치의 특성상 중복되는 인물을 피하면서 스토리가 전개되도록 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예를 들어 경전에 문수보살이 나오고 보현보살이 나오고 다시 문수보살이 나오는데 부조상에서는 처음 문수보살을 생략하고 보현보살을 Ⅱ14에 먼저 변상화했다. Ⅱ16에서 처음으로 문수보살이 나온다. 또한, 10번째 선지식 승열바라문이 선지식 순서로 나오지 않고 Ⅱ70에 등장한다. 26선지식 바수밀다도 뒤쪽 Ⅱ91에 처음으로 나온다. 이런 현상은 전 회랑에 걸쳐 적용됨으로 순서의 변동은 큰 문제가 안 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51번째 선지식인 미륵보살 관련 부조상은 128부조상 중 126번째, 127번째 나오는데 3회랑에서 더욱 자세하게 다루어질 미륵보살과 선재동자의 전용층에 대한 예고편에 해당한다. 53선지식 보현보살은 128번 제일 끝 부조상에 변상화되어 있는데 3회랑 경우와 마찬가지로 4회랑에 보현보살과 선재의 재등장에 대한 예고편이다. 2회랑의 이러한 비정을 통해 본 결과 2.3.4회랑이 서로 연속성을 보이고 있음을 짐작케 한다.

위에서 2회랑 주벽의 부조상을 비정한 결과 '입법계품' 의 53선지식이 부조화돼 있어 2회랑은 화엄수행 52계위와 배대됨을 알 수 있다.

〈화엄경〉 '입법계품' 은 수행자의 수행 계위와 불지에 이르는 방법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주요 역할이므로 2회랑 부조상의 배치는 '화엄계위' 를 전달하는 가장 훌륭한 방식이라 하겠다. 2회랑은 십신-십주-십행-십회향-십지까지의 계위를 선지식의 가르침을 통해 보이며 대탑 4회랑 중 기승전결의 '승' 에 해당한다.

〈아제여행사 대표〉

청빈한 스님들에게는!
마이크 하나만 바꾸셔도 법당 소리가
놀랍게 달라지는 마이크를 소개합니다.
마이크 소개법 : 전화 하시면 귀 사찰 부근을 지날 때 겸사겸사 들러서 마이크소리 비교 테스트!
마이크소리 테스트 비용 : 한잔
30년간 설악 신흥사부터 남해의 토굴까지 1천여 사찰 시설 및 마이크만 바꿈도 2천여 사찰!
▣ 본품은 방문판매만 함으로 시중에 없고 있을시는 일천만원 포상 … 지금 이글은 법적증서
시설상담 : USB겸용 앰프1, 스피커 4개, 헤드셋 핀 핸드무선마이크, 무선마이크 종류별 4개, 유선마이크 1개(스탠드 포함)
▣ 주소 : 경남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 백팔 명품Sound 명품사운드 대표 박 공 희 ☎ 055-343-1191, 010-9471-2026
충전식 / 출력 300kw / 헤드셋 무선 2개
유선 2개 마이크 4개 동시사용, USB 동시녹음
실내 100평 가능 / 야외사용 겸용 (스탠드 포함)
가격 ₩ 89만원
각종 "재" 전문 무선시스템
넥타이핀마이크 2개, 헤드셋마이크 2개, 마이크 숫자 4개
시중에 없음
시중에 없음
특징 : 마이크와 2m거리에서
작은 소리에도 청아하고
신명나는 소리로 화답!



우공침술
개·인·교·습
딱 6일 만에 우공이 개발한 TLS 침법을
전문가 수준으로 배우실 수 있는 과정을 소개합니다.
TLS 침법은 어깨, 허리, 무릎의 통증과 같은 우리 몸의 모든 통증들 및 수많은 질환들을 치료할 수 있는 획기적이고 기발한 침법입니다. TLS 침법은 생명과학적인 원리에 의해 개발되었기 때문에 혼란스럽고 어려운 혈자리들을 애써 익히지 않아도 됩니다. 단지 뇌가 통증을 유발시키는 지점을 정확하게 찾아 TLS 침법으로 자극하는 테크닉만 익히시면 됩니다. 그래서 6일 만에 침술을 완벽하게 배우실 수 있는 이유입니다. 침술을 배우시는 많은 분들이 침술을 너무 어렵게 배우고 있습니다. 과학적 근거가 없는 형식적인 혈자리들을 죽어라 익히고 그 자리에 단순히 침을 찌르는 방법을 배워서는 안 됩니다. 침술을 제대로 배우시려면 침으로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기발한 침법을 배우시는 겁니다. 완전 초보자분이라도 딱 6일만 시간 내시면 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기발한 TLS 침법을 전문가 수준으로 배우실 수 있습니다. 지방분들은 3일 동안의 속성과정으로도 배우실 수도 있습니다. 우공침술의 침술 개인지도는 1:1의 철저한 실습위주로 실시되며, 서울은 물론 지방의 어느 곳에서든지 저에게 오셔서 교습을 받으시거나 또는 제가 방문하여 지도해 드립니다.
NAVER 우공침술 ▼ 검색 하시면
저의 블로그에 접속되며, 그곳에서 침술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우공침술연구원 문의 및 수강신청 : 010-4054-7110